

눈앞에서 즐기는 해외여행·야구중계… 차별화 서비스 ‘속속’

5G 상용화 2년

〈中〉 킬러 콘텐츠를 찾아라

SKT 혼합현실 서비스 주력

점프VR앱 통해 e스포츠 중계

KT 생활형 콘텐츠 라인업 확대

어학연수·매장투어 등 VR 지원

LGU+ 양방향 서비스 확대 추진

예능 등 VR 콘텐츠 2300편 달해



SK텔레콤 점프 VR 앱.



/SKT KT VR 어학연수



/KT LG유플러스 '8K 소셜VR 실감 야구 중계'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는 5G 상용화 2주년을 맞아 '킬러 콘텐츠' 개발에도 전념하고 있다. 특히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5G 특성에 맞춰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 개발을 위해 힘쓰는 모양새다. 5G는 영상이나 클라우드, 인공지능(AI)과 접목된 융합서비스가 가능하다.

◆VR·AR '킬러 콘텐츠' 발굴 나서서 이통사

5월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시대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이 동통신사가 가상·증강현실(VR·AR) 등 실감형 콘텐츠 확보에 나서고 있다. 분야도 다양하다. 공연 뿐 아니라 여행, 게임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가상현실에서 즐길 수 있는 기술이 떠오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AR·VR 시장 규모는 2800억 달러(약 319조 원)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SK텔레콤은 VR·AR을 비롯한 혼합현실(MR) 서비스에 주력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019년 선보인 '점프 VR' 앱은 지난해부터 LCK(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카트라이더 등 인기 e스포츠의 무관중 경기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 수가 늘었다.

콘텐츠를 위한 협업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SK텔레콤은 VR 벤처 게임회사 픽셀리티게임즈와 넥슨의 인기 캐릭터 '다오', '배찌' 등이 등장하는 '크레이지월드VR' 베타 테스트를 진행한 것을 비롯해 사격, 양궁, 테니스, 볼링 등의 미니게임도 VR로 제공하고 있다. 또 신축 용인세브란스병원과 협업해 힐링 VR 영상 '마인드풀니스' 12편을 공동 제작해 공개하고, AI기반 에듀테크 스타트업 '마블러스'와는 VR기반의 어학 시뮬레이션 콘텐츠 '스피릿'을 선보였다.

점프 AR 앱을 통한 콘텐츠도 늘려가고 있다. 점프 AR의 동물 캐릭터를 KB

O 프로야구, NBC 유니버설 영화 등과 연계해 AR 사진 촬영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픈갤러리 기능을 신설해 타인과 SNS 상에서 AR 사진을 공유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KT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트렌드에 맞춰 개인형 VR 서비스 '슈퍼VR'에 헬스케어·교육 등 생활밀착형 콘텐츠 라인업을 늘리기도 했다. 'VR 어학연수', 'VR 원격 모임' 뿐 아니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매장투어나 전시회 관람 서비스도 추가했다.

LG유플러스 또한 VR·AR 서비스에 두각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2억7000분 이상의 콘텐츠가 재생됐고, 이용자들은 지난 2년간 월평균 25분씩 U+VR 콘텐츠를 시청하며, 약 10GB의 데이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편당 4~5분 정도의 부담 없는 시청시간이 '스낵컬처' 시대에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5G 서비스들이 '감상'에

집중돼 있었다면, 향후에는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양방향 서비스로 콘텐츠를 진화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VR 영역에서 국내 최대 2300여편에 달하는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고, 1000여편의 영상을 선보였다. 초창기 음악방송, 스타데이트 수준에 머물렀던 콘텐츠 장르도 올해는 공연, 드라마, 예능, 영화 등으로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첫 5G 콘텐츠 연합체 'XR 얼라이언스'를 통해 3D 360도 VR 최초로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촬영한 영상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전문 스튜디오도 구축

본격적으로 전문 스튜디오를 구축하며 콘텐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4월 아시아 최초로 MS와 협력해 혼합현실 제작소 '점프 스튜디오'를 서울에 열었다. MS의 볼류메트릭 비디오 캡처 기술로 인물의 움직임을 홀로그램 비디오로 구현하

고, SK텔레콤의 'T 리얼 플랫폼'의 공간인식·렌더링 기술로 홀로그램과 현실 공간이 어우러진 콘텐츠를 만들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공연·광고 기획사, 게임·영화 제작사 등 다양한 B2B 고객과 파트너십을 맺고 혼합현실 등의 콘텐츠를 제작해 공급하는 등 콘텐츠 선택 폭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또한 지난 2019년 'U+AR스튜디오'를 개관했다. 약 100㎡에 달하는 규모로, 기존의 AR 스튜디오들이 한 사람을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면, U+AR스튜디오는 동시에 2~3명까지 동시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U+VR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직접 투자하고 제작에 참여한 오리지널 콘텐츠가 많다는 점"이라며 "앞으로 VR 기기의 진화와 함께 VR 콘텐츠 시장의 외연도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은성수 "쌍용차 기업회생절차, 재기 기회로"

(금융위원장)

"HAAH 투자결정 떠나 최선 노력 회생절차 했다고 말하는 것 아니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절차와 관련해 "HAAH오도모티브 투자자 사정을 감안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며 "노사와 채권단, 협력업체가 지혜를 모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업권 최고경영자(CEO)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 채권단과 회생법원관리위원회 등에 쌍용차 기업회생절차 개시여부에 대한 의견조회서를 보냈다. 잠재적 투자자인 미국 HAAH가 법원이 정한 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투자의향서(LOI)를 보내지 않은데 따른 조치다. 업계에선 이르던 오는 8일 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은 위원장은 "HAAH가 그냥 안한다거나 시간을 달라고 한 것 같다"며 "(채권단이) 법원에서 투자자 사정을 감안해 시간을 더 달라는 의견을 낼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HAAH가 투자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한 살리는 방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업권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향에 주안점을 두고 회생절차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이 여러 이해관계자를 모아 어떻게 회생시킬지 의견을 모으는 것"이라며 "회생절차를 했다고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기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회생법원이 쌍용차측에 기업회생절차 돌입시 조기졸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통상 회생절차시 회생계획안 제출에만 4개월이 걸리고 회생종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를 단축해 빠르게 정상화시키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은 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장과 만나 금융소비자법이 조기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대출·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손실의 위험이 큰만큼 민원과 분쟁이 많아 각별한 소비자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격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 자본시장법이 개정된만큼 내규 정비, 준법교육 등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은 위원장은 "개정내용과 준비상황을 현장까지 신속히 공유 확산할 수 있도록 협회가 당국과 현장직원간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 달라"며 "필요하다면 금융위 직원들이 찾아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주주반발 커질수록 변호사 웃는 아이러니

>> 1면 '일방적 대주주 견제...서 계속

◆경영권 위해 막대한 변호사 비용 지불

A사를 비롯한 많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투자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코스닥 제약 전문업체 B사 소액주주연대 박남현 대표는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의 자포자기한 마음"이라며 "회사는 조직이다.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법률팀으로 강력하게 응대하다 보니 개인이 뭉친 소액주주들로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소액주주운동 역효과와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소액주주다.

의명을 요구한 코스닥 C사 소액주주연대 대표도 "경영진이 변호사 뒤에 숨어 방어만 하고 있다"며 "회사 비용으로 막대한 상주변호사 비용을 지불한다고 생각하니 한심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그런데도 정병원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주권을 찾기 위한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회사가 투명하게 경영될 수 있도록 주주들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코스닥 투자 문화가 바뀌고 주주들의 입김이 세져 적법 경영을 한다면 투

명한 지배구조 개선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그리고 주주 반란이 심해질수록 회사 측에 일하는 변호사의 수임료는 더 올라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사측 변호사들은 소액주주 쪽에 서는 상대편 변호사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자조 섞인 농담도 던졌다.

회사 비용으로 변호사 보수를 지불할 경우 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회사 대주주나 경영진 등 특정 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비용이기 때문이다.

중립적 안전이 아닌 경영권 분쟁 등 주주들의 이해가 상충하는 사례에서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개인 비용으로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총이 아닌 사례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해 변호사 비용을 회사가 지불했다면 배임에 해당한다는 검찰기소 사례는 많이 있다"면서도 "주총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나 의결권 수거업체 비용을 회사에 전가했다고 해서 배임으로 처벌 받은 선례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연대 등이 그러한 행위에 대해 고발을 해야 하지만 그런 사례조차 광장히 드물다"고 덧붙였다.

/송태화 기자 avin@